



# KWC 수상의 쾌거를 거둔 수입사들의 소감과 계획

KWC에 출품할 와인을 선정하며, 수입사들은 다방면으로 고심한다. KWC에서의 수상은 품질이 뛰어난 와인을 들여온다는 확신을 주며, 와인을 홍보하는 데도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 고심의 결과를 받은 수입사들에게 소감을 들어 보았다. 수상 와인들을 어떻게 홍보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글·정리 강은영

## KS와인



**소감** ▶ 애착이 많은 와인들이 좋은 결과를 얻어서 어느 해보다 의미가 크다. 특히, 이탈리아 남부의 와인으로, KS와인의 주력상품인 포스타 피아나 2017, 세르파라 알리아니고 2012는 골드 메달을 수상해 기대만큼 좋은 결과를 얻었다. 또 3년 연속 출품한 도멘 게이다 와이너리의 슈망 드 모스코우는 해마다 더 좋은 성적을 받아 이번에는 금메달을 수상했다.

**계획** ▶ 첫째, KWC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이다. 둘째, 당사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나 와인행사 시 KWC 수상 와인임을 강조하고 다양한 매체에 노출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KWC 수상 와인에 메달 스티커를 부착해 수상 와인임을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다.

## 국순당



**소감** ▶ 올해 가장 큰 수확은 도멘 몽로즈가 로제 부문 트로피를 차지한 것이다. 또한 신규로 들어온 텔모 로드리게즈 알 무베드레가 은메달을 받았다. 많은 와인을 출품하진 못했지만 그럼에도 큰 성과를 거둔 것 같아서 기쁘다.

**계획** ▶ KWC에서 수상을 하고 나면 와인리뷰에 다양한 기사들이 나오는 것이 좋다. 다른 매체에서도 KWC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국순당에서는 KWC 수상 내역을 브랜드 교육이나 와인 교육을 할 때 사용하고 있으며 백화점에서 와인을 판매할 때도 수상 내용을 홍보하여 판매에 활용하고 있다.

## 루나



**소감** ▶ KWC에서 트로피를 수상하는 것은 남의 일인 줄만 알고, 축하만 해봤다. 그런데 축하를 받으니 여인이 병병했다. 몬트 다 라바스케이라는 '언젠가는 포르투갈 와인을 알아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수입한 와인이다. 그 바람이 14년을 지나 빛을 발하여 고무적이다. 특히 베스트 컨트리 수상에 이어 레드 부문 트로피, 그리고 화이트 와인 트로피를 수상해 3관왕이나 차지했다. 그 외 실버와 브론즈를 수상한 모든 와인이 같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계획** ▶ 이미 많은 분들이 축하와 문의를 주었다. 와인리뷰를 통해 꾸준히 이 와인을 소개하고 광고할 생각이며 이 여세를 몰아 봄을 일으킬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하고 싶다.

## 화란덕와이너리코리아



**소감** ▶ 올해 KWC에서 트로피를 수상함으로써 화란덕 와인을 만든 베타 품종이 인정받았음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이번 수상은 독일과의 기술결합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획** ▶ 수상 와인에 대해서 사람들의 오감을 자극할 짧은 영상을 만들 예정이다. 그리고 다양한 시음행사를 통해서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고 블로그나 SNS의 입소문을 통해 와인을 홍보할 계획이다.

## 비노킴즈



**소감** ▶ 투 리버스 브룩비 힐 빼노 그리가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 특히나 투 리버스의 대표 와인으로 잘 알려진 소비농 불량 외에 최근 소개된 빼노 그리에 대해 전문가들의 인정을 받게 된 것 같아 의미가 새롭다.

**계획** ▶ 연중 각종 행사와 시음회 등을 통해 기회가 될 때마다 전문가들과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갈 예정이다.

## 문도비노



**소감** ▶ KWC 출품 와인을 고를 때마다 고심을 하는데, 고심 끝에 선정한 와인 4종이 모두 골드와 실버 메달을 수상하게 되어 만족스럽다. 올해 출품와인은 새로 선보이는 신규 와인 1종과 우수한 퀄리티와 경쟁력으로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3종이었다. 그 중 베로니아 레세르바는 이번에도 금메달을 수상하여, 변함없는 품질로 좋은 평가를 받는 와인임을 확인했다.

**계획** ▶ 수상 와인 모두 품질이 우수하며, 가격 경쟁력도 높을 뿐 아니라 대중들의 입맛에 잘 맞는 와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SNS를 통해 수상 소식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자 한다. KWC에서 주최하는 소비자 대상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생각이다.

## 신세계 L&B



**소감** ▶ KWC 2019에서 총 26개의 메달을 수상해 기쁘다. 신세계 L&B는 올해 상반기 동안 품질 좋은 다양한 산지의 와인들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KWC 2019에서 알자스, 남프랑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칠레, 미국, 호주 와인들이 메달을 수상하여 그간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 같아 의미가 깊다.

**계획** ▶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산지의 와인을 선보이고 싶다는 목표로 출품할 와인을 선별했다. 이번에 수상한 와인들 중 몇몇은 와인의 산지가 아직 소비자들에게 낯설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은 소비자들에게 브랜드를 많이 노출시키기 위해 SNS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통한 브랜드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 와이넬



**소감** ▶ 와이넬은 2010년부터 해를 거르지 않고 KWC에 꾸준히 참여해왔다. 그동안 베스트 컨트리 부문에서 다섯 차례, 화이트 트로피를 세 차례 수상하면서 10년 차 도전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낸 것에 대해 자부심이 크다. 그만큼 와이넬이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품질의 와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는데 도움이 되었다. 올해는 아쉽게도 트로피를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금메달 실적(11종)이 상승하여 와이넬 포트폴리오의 강세를 실감할 수 있었다.

**계획** ▶ 온·오프 채널에 수상 와인 광고를 노출할 예정이다. 또 KWC 수상 와인 시음회에 참여하고 특히 지역 투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이다. 와이넬의 단독 브랜드 테이스팅 행사에서는 KWC 금메달 수상 와인만 단독 부스로 선보일 계획이다.

## 엘비



**소감** ▶ 기존에 수상했던 제품들이 재선정되어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수상은 런칭 후 처음 출품한 도멘 페브르 샤블리의 수상이 아닐까 싶다. 엘비의 샤블리가 훌륭한 품질을 인정받으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여줘서 기쁘다.

**계획** ▶ 메달을 수상한 와이너리와 한식 마리아주를 보여주는 디너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 외 SNS와 블로그를 통해 수상 내용을 홍보하고, 거래처에서도 셀링 포인트로 활용할 생각이다.

## 더뱅셀렉션



**소감** ▶ 창업 이래로 매년 KWC에 참가하고 있다. 올해는 남부 이탈리아의 와이너리 포데레 29와 파트너십을 맺자마자 현지에서 KWC에 출품하여 3품목 중 2품목이 골드 메달을 수상하였기에 마케팅에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계획** ▶ 소비자들과 접점을 이루는 장터나 프로모션 행사에 수상 내용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그리고 와인리뷰의 KWC 시음 투어에도 최대한 참여하고, 해당 와인과 잘 어울리는 메뉴들을 선보이는 레스토랑에 홍보와 영업을 집중하고자 한다.

## 안시와인



**소감** ▶ 르 뵈피 까브리예르가 실버 메달을 수상했다. 작년에 이어 연속으로 수상했다는 것은 빈티지가 바뀌어도 우수한 품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때루아가 좋은 물론 양조자의 노력도 함께 인정받은 것이라 생각한다.

**계획** ▶ UIV 미니와인엑스포 개최 시 당사의 부스 안에 KWC 수상 와인 섹션을 별도로 만들 계획이다. 온라인 홍보는 안시와인 공식블로그와 올해 오픈 예정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계획 중이다. 마지막으로 주최 측에서 진행하는 KWC 수상 와인 홍보에도 적극 지원할 생각이다.



### 레뱅드매일



**소감** ▶▶ 레뱅드매일을 대표하는 5대 브랜드뿐만 아니라 새롭게 조명 받은 와인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만족스럽다. 특히 샴페인의 명가 도초가 역대 KWC 스파클링 부문에서 올해까지 총 4번의 트로피를 수상해 의미가 크다.

**계획** ▶▶ 각 브랜드 별로 다양한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 공통적으로는 넥택을 부착해 셀링포인트를 강조할 생각이다. 도초의 경우에는 샴페인 판매량이 높은 겨울 시즌에 맞춰 대규모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있다. 샴페인 고세는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인 헤이조이스와 협업해 자신에게 맞는 와인을 찾아가는 와인클래스를 준비 중이다. 또 포르타 6는 신규 런칭을 기념해 SNS 이벤트 등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브랜드를 대상으로 서포터즈를 운영하거나 SNS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며 바이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 에노테카코리아



**소감** ▶▶ 작년에는 출품하지 않았지만 판매를 시작한 지 몇 년 된 브랜드들과 새롭게 시작하게 된 브랜드를 출품했다. 결과가 좋아서 뿌듯했고, 매해 출품하지만 수상 소식은 언제나 기쁘다. 새로 시작한 스페인 와인 3종, 각각 콘데 데 카탈 브뤼이 골드 메달, 콘데 데 카탈 로사도와 르네 바르비에 카바 브뤼 리제르바가 실버 메달을 수상해서 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 생각한다.

**계획** ▶▶ 홍보 효과를 보려면 유명 매체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면에서는 와인리뷰 지면 광고도 좋을 것 같고, 여타 와인 전문 웹사이트에 기사를 내는 것도 효율적일 듯하다.

### 더바인컴퍼니



**소감** ▶▶ 이탈리아 보테가 사의 한국 독점수입사로서 많은 수상을 하게 되어 영광이다. 총 7개의 보테가 와인이 수상했다. 특히 보테가 일 비노 데이 포에티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2014가 베스트 이탈리아 레드에 선정된 것은 의미가 크다. 보테가는 프로세코 명가로 알려져 있지만, 이를 발판으로 토스카나와 발풀리첼라의 포도밭을 매입하여 스틸 와인 부분에서도 경쟁력을 갖추어 왔다. 국내에서도 그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이 큰 의미다. 그 외 출품한 프로세코들도 대부분 수상하여 명가의 저력을 보여줬다.

**계획** ▶▶ KWC 수상 자체가 가장 큰 홍보이며 이를 통해 브랜드 파워를 얻을 수 있다 생각한다. 브랜드 시음회도 개최할 생각이며,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면 참여해서 와인을 홍보할 것이다. 와인리뷰 역시 최적의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다.

### 샤프트레이딩 Sharp Trading Inc.

**소감** ▶▶ 이 와인이라면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출품했는데 올해도 10종을 출품해서 4종이 금메달 3종이 은메달을 받아서 대단히 기쁘다. 특히 수입시점에 조금 망설였던 이탈리아 내추럴 와인 아드리아노 그라소 바르베라 다스티 수페리오레 2015가 금메달을 수상하여 스토리텔링의 소스가 생긴 것 같아 더욱 기쁘다.

**계획** ▶▶ 수상 발표 후에 SNS를 통해서 홍보를 했다. 앞으로 KWC 해쉬태그를 이용해서 홍보를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KWC 주최 측에서 여는 시음회에도 꾸준히 참석하고 당사 고객 대상 시음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WS통상



**소감** ▶▶ 샤또 삐뽀가 2017년에 이어 올해도 베스트 프랑스 레드 와인에 선정됐다. 2017년에는 2014년 빈티지가, 2019년에는 2016년 빈티지 와인이 수상해 빈티지의 기록 없이 뛰어난 와인을 생산하는 샤또임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계획** ▶▶ KWC는 한국의 소믈리에들이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통해 와인을 선별하는 대화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홍보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KWC 2019 수상 와인시음회에 참석하고, 소비자들이 블라인드로 시음해 볼 수 있는 이벤트도 고려하고 있다. 베스트 레드 수상 와인으로 시작하여 다른 메달 수상 와인을 찾아서 인증하는 릴레이 이벤트도 준비할 예정이다.

### 신동와인



**소감** ▶▶ 베스트 컨트리 와인을 포함하여 골드, 실버, 브론즈까지 총 16종의 와인이 수상을 거두었다. 특히, 로버트 몬다비 나파밸리 까베르네 소비뇽은 미국을 대표하는 와인으로 다시 한 번 자리매김했고, 새로 출시된 로버트 몬다비 프라이빗 셀렉션 버번배럴 에이지드 까베르네 소비뇽의 수상은 클래식한 와이너리의 새로운 도전이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계획** ▶▶ KWC수상 메달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하고 다양한 판매 채널에서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 헬레닉와인



**소감** ▶▶ 사모스 넥타르가 포티파이트 부문 트로피를 받았다. 중요한 수상은 이번 아니다. 비블리아 호라 플라기오스 레드가 베스트 컨트리 부문 그리스 레드 와인으로 선정되었고, 비블리아 호라 오빌로스과 게로바실리우 비오니에, 게로바실리우 소비뇽 블랑이 골드 메달을 수상했다. 무엇보다 KWC가 한국의 소믈리에들이 심사해 최고의 와인을 선별한다는 점에서 그리스 와인이 한국인의 입맛에도 잘 맞고 사랑받고 있음을 증명해 주었다.

**계획** ▶▶ 헬레닉 와인은 다양한 와인 박람회, 소핑센터, 레스토랑을 통해 그리스 와인을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통 판로를 확대하고 그리스 와인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한다.

### 유와인



**소감** ▶▶ 매해마다 KWC에 출품하고 있는데 꾸준히 수상을 하는 와인들이 있어서 기쁘다. 특히, 이탈리아의 발레치피올라 끼안띠 플라시코가 금메달을 수상해 의미가 크다. 유와인은 호주 와인 위주의 신대륙 전문 와인수입사라는 이미지가 큰데, 구대륙 와인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탈리아 출장에서 힘들게 찾아온 와인이라 기대가 컸던 와인이다. 그런 만큼 자신 있게 선보일 수 있는 와인이기도 하다.

**계획** ▶▶ 현재 진행 중인 와인리뷰 광고를 비롯해 여러 시음회와 이벤트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 BK트레이딩



**소감** ▶▶ 하반기 출시 예정인 칠레 신규 와인 코트 롤란 전 레인지가 모두 수상을 의미한다. 코트 롤란 파터 까베르네 소비뇽, 코트 롤란 마터 까르메네르, 코트 롤란 블랑 드 블랑은 금메달을, 코트 롤란 필리우스 레드 블랜드는 실버를 수상했다. 코트 롤란은 까사 델 토끼를 대표하는 레인지로 오너 부부와 아들의 이름을 브랜드 명으로 내세운 와인이다.

**계획** ▶▶ 와인리뷰 광고를 통하여 다시 한 번 구독자들에게 수상 소식을 전할 계획이다. 또 수상 와인 각 판매처에서 소비자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수상 소식을 전달하고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SNS를 통한 홍보도 물론 진행할 것이다.

### 비노파라다이스



**소감** ▶▶ 7종의 와인이 수상을 했다. 특히 지아코모 페노키오 돌체토 달바와 라 리오하 알타 비나 아라나 그랑 리제르바의 골드 메달 수상이 만족스럽다. 라 리오하 알타 비나 아라나 그랑 리제르바 2012의 경우, 그동안 리제르바 급으로만 출시되던 와인의 탁월한 구조감과 아로마로 인해 그랑 리제르바로 승격한 첫 빈티지다. 출시와 동시에 수상 성과를 거두어 더욱 기쁘다.

**계획** ▶▶ 수상 소식을 비노파라다이스의 와인 설명서와 브랜드 북에 실고 SNS 채널을 활용해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 솔트와인



**소감** ▶▶ 올해 주요 세일즈 타깃은 프랑스 루아르의 장 모리스 라포였다. 와이너리의 여러 셀렉션 중 화이트 와인에서는 쉬농 블랑, 레드 와인인 르 푸이를 출품했는데 두 와인이 나란히 실버 메달을 수상했다. 공신력 있는 KWC에서의 수상인 만큼 신규 거래처를 공략하기 좋은 요소가 되리라 생각한다.

**계획** ▶▶ 그간 세일즈를 레스토랑이나 와인바 등의 온 트레이드에 집중했었는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소비자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한다. 와인샵에서 소규모 시음회를 기획하거나 애호가들의 모임을 공략해 봐도 좋을 듯하다.

### 나루글로벌



**소감** ▶▶ KWC에서 수상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한다. 특히 올해는 반 폭셈 자르 리슬링이 베스트 독일에 선정되어 아주 의미가 크다.

**계획** ▶▶ KWC 2019에서 수상한 와인들을 와인리스트의 수상 경력에 업데이트하고, 자사 SNS를 통해 홍보를 할 계획이다. KWC 사무국에서도 매체나 SNS를 통해 수상 와인들을 홍보해주면 좋을 것 같다.



# KWC 수상 미수입 와인에 대한 기대

KWC 수상 와인리스트에는 아직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 와인들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KWC 미수입 수상 와인에 대한 수입사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 미수입 와인에 궁금한 점

**안시와인** ▶ 미수입 와인이 해외 어느 곳에서 팔리고 있는지 궁금하다. 아시아에서 많이 팔리는지, 미국에서 많이 팔리는지, 혹은 어떤 레스토랑이나 샵에서 많이 팔리는지 등 실제 판매정보도 알고싶다.

**KS와인** ▶ KWC 이외의 수상 이력과 미수입 와이너리에서 원하는 한국 수입업체의 규모에 대한 정보도 알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BK트레이딩** ▶ 미수입 와인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KWC에 출품되는지 궁금하다.

## 수입사 대상 블라인드 테이스팅

**더뱅셀렉션** ▶ 미수입 와인들은 수입사의 소싱 담당자들이 경험을 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음이 가능한 와인이 있다면 KWC측에서 수입사 담당들을 초청하여 시음 기회를 마련하고 가격 및 와인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해 주는 자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WS통상** ▶ 수입 전에는 가격과 함께 다른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많아 와이너리 측에 컨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정기적으로 미수입 와인에 대한 전문인 대상 블라인드 시음 행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비노파라다이스** ▶ KWC 수상 발표 직후 수입사들을 초청하여 미수입 수상 와인들을 따로 테이스팅 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면 와인 수입 검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 관심을 두고 있는 미수입 와인들

**비노킴즈** ▶ 최근 포르투갈이나 그리스 등 아직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잠정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지역의 미수입 와인들이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을 보았다. 이를 통해 시장의 요구나 방향이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지역의 와인들이 소개될 바란다.

**샤프트레이딩** ▶ 이번 수상 리스트 중에서는 포르투갈 와인들에 관심이 있다.

**엘비** ▶ 미국 캘리포니아 미수입 와인에 대해 궁금하다.

## 소비자들에게도 기회를

**더바인컴퍼니** ▶ 수입사 입장에서 미수입 수상 와인들은 매력적이고 탐나는 대상이다. 그간 지속적으로 미수입 와인을 소개하여 보다 쉽게 접근할 기회를 마련해 준 부분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소비자들에게도 미수입 와인을 접하고 시음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면 좋겠다.

## 새로운 와인을 알아가는 기회

**와이넬** ▶ KWC 미수입 수상 와인들에 대한 소개는 다양한 국가에서 개성 있는 좋은 와인이 생산되고 있다는 유익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세계 L&B** ▶ KWC에서 수상한 미수입 와인들의 출신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다. 매달 와인리뷰에서 소개해주는 와이너리의 소개와 테이스팅 노트를 통해 다양한 나라의 와이너리와 신생 와이너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다.

**국순당** ▶ 수상한 미수입 와인에 대한 소개는 신규 와인을 찾는 수입사들에게 좋은 정보가 된다. 지금까지 미수입 와인들이 한국 시장에 더 관심을 갖고 출품할 수 있도록 KWC가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W